



만주족도리풀 / *Asarum heterotropoides* var. *mandshuricum* (Maxim.)
Kitag.

구분	설명
생물분류	식물
속국명	족도리풀속

과국명	취방울덩굴과
과명	Aristolochiaceae
일반특징	<p>요약설명 : 취방울덩굴과 여러해살이풀로 잎이나 꽃을 감상하기 위해 키우기도 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산지에서 자라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p> <p>분포지역 : ▶한국,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산지에서 자란다.</p> <p>형태 : 속근성 여러해살이풀로 관엽, 관화식물이다.</p> <p>크기 : 높이 4~10cm이다.</p> <p>꽃색 : 자주색, 녹색</p> <p>개화기 : 5월, 4월</p> <p>잎은 심장 모양 또는 콩팥 모양이며 끝이 뾰족하고 밑부분은 깊은 심장저이다. 겉면은 녹색이고 윤기가 없으며 뒷면 맥 위에는 잔털이 있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자루는 길며 자줏빛이 돈다.</p> <p>꽃은 잎이 싹틀 때 잎 사이에서 1개씩 나온다. 색은 검은 홍자색이다. 꽃받침은 둥근 공을 반으로 잘라놓은 모양이고 안쪽에 줄이 있다. 꽃이 통처럼 되어 있는 부분의 끝은 3개로 갈라져 뾰족하고 뒤로 말려 있다. 씨방은 꽃받침 위에 있고 암술대는 6개이며 12개의 수술은 두 줄로 배열되어 있다. 열매는 장과 모양이고 끝에 꽃덮이조각이 달려 있으며 씨앗이 20개 정도 들어 있다.</p> <p>줄기 끝에서 2개의 잎이 나와 마주나기한 것처럼 퍼진다.</p> <p>뿌리줄기는 마디가 많고 매운맛이 있으며 가늘고 길다. 수염뿌리가 많다.</p> <p>산지의 나무그늘에서 자란다. 식물이 썩어 만들어진 유기물이 많으며 점토가 섞인 땅이 적합하다. 꽃이 필 때까지는 빛이 필요하고 꽃이 핀 후에는 반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지붕이 없는 보통 땅에서 겨울을 나고 16~30℃에서 잘 자란다. 뿌리줄기를 잘라 심는 방법으로 번식시킨다.</p>